

러시아 브리야트(Buryat) 종족의 현황 및 종족 복음화를 위한 선교전략

- 러시아 연방 브리야트 공화국(Buryat Republic)의
울란우데(Ulan-Ude)와 키진가(Kizhinga)를 중심으로 -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RFR(Russia Field Research) 1기 훈련팀¹

¹ 위 보고서는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RFR(Russia Field Research) 1기 훈련팀에서 2009년 7월 2일 ~ 2009년 7월 23일까지 러시아 연방 브리야트 공화국의 울란우데와 키진가 마을을 중심으로 브리야트 종족에 대해 현장 조사한 결과이다.

목 차

I. 조사설계

II. 들어가는 말

III. 브리야트 종족의 현황

1. 일반개요
2. 정치분야
3. 사회분야
4. 경제분야
5. 생활분야
6. 교육분야
7. 종교분야
8. 기독교 상황

IV. 브리야트 종족의 선교전략

1. 기존 선교 현황
2. 브리야트 종족 선교의 방해요소
3. 브리야트 종족 선교의 가능성과 성공사례
4. 브리야트 종족의 선교전략 제언

V. 나가는 말

I. 조사설계

1. 조사의 필요성

1) 지역의 중요성

러시아는 160여 개 종족으로 구성된 다민족국가이다. 10개국 이상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주변국가에 미치는 영향력도 크다. 1990년대 초, 소비에트 연방 해체 이후 러시아 선교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였으나 현재 러시아는 선교적으로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 내의 수많은 민족과 지리적 여건으로 볼 때 러시아 선교의 잠재된 가능성을 알 수 있다.

브리야트² 공화국(Buryat Republic)은 러시아 내 21개 공화국 중 하나이다. 몽골과 중국 접경 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도인 울란우테(Ulan-Ude)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 Trans-Siberian Railway)와 몽골횡단철도(TMR, Trans-Mongolia Railway)이 만나는 교통의 요지이다. 또한 울란우테는 러시아 내에서 가장 동양적인 모습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도시 중 하나이다. 브리야트 공화국은 남쪽으로는 몽골과 접해있고, 오른쪽으로 자바이칼스크 변경(과거 치타 주), 왼쪽으로 투바 공화국, 서북쪽으로 이르쿠츠크주(Irkutsk)와 접해있다. 또한 야쿠트, 에벤키, 투바족 등의 시베리아 소수 민족 자치지역과 접해있어 시베리아 민족 선교를 위한 관문지역이다.

울란우테 서쪽에 위치한 바이칼 호수는 ‘샤먼의 고향’이라고 불릴 정도로 샤머니즘의 역사가 깊으며, 이와 관련된 여러 설화와 이야기, 제사, 다양한 형태의 샤먼 풍습이 있다. 몽골,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샤머니즘의 기원도 이곳에서 연유했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17세기 이래 동부 브리야트 지역에 라마불교가 전파되었고, 러시아 라마불교의 총본산인 아볼긴스키 다찬(Ivolginsky Datsan)사원이 있다. 현재까지 상당수의 브리야트 종족이 샤머니즘과 혼합된 형태의 라마불교를 믿고 있다.

2) 종족의 중요성

브리야트 종족은 크게 다음과 같은 2가지 이유에서 그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다.

² 브리야트를 부랴티아(Buryatia)라고도 한다.

첫째, 시베리아창의 관문종족(gateway people)으로서의 중요성이다. 브리야트 종족은 몽골과 러시아, 중국 3개국에 걸쳐 넓게 분포하고 있다. 이는 아시아에서 시베리아 대륙으로 이어지는 지점이다. 세계면적의 1/12을 차지하는 시베리아에는 현재 30여 개의 선주민 공동체가 있다. 160여 민족이 살고 있는 다민족국가인 러시아에서 중앙아시아와 인접한 이슬람권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미전도 종족은 시베리아에 집중되어 있으나 선교적 관심과 지원은 미미한 편이다. 시베리아에 있는 소수 민족을 향한 북방선교와 이를 위한 학술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둘째, 브리야트의 전통 종교로 여겨지는 라마불교³와 샤머니즘의 중요성이다. 브리야트의 전통 종교는 크게 바이칼 호수 서쪽의 샤머니즘과 동쪽의 라마불교로 나누어진다. 브리야트 종족을 중심으로 이 두 가지 유형의 신앙이 러시아 내에서 고착화 되었고, 이는 다른 시베리아 원주민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현재 러시아는 서구에서 불교도 제 2위의 국가이며, 대부분의 불교도들은 브리야트 공화국과 칼미크 공화국, 투바 공화국에 있다. 한편 30여 개 시베리아 원주민 공동체뿐만 아니라 한국, 아메리카 원주민까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샤먼신앙의 기원이 바이칼 호수에 있다는 설이 유력하다. 따라서 바이칼을 기점으로 하는 샤머니즘을 조사한다면 차후 시베리아 미전도 종족 연구, 나아가 한국 무교신앙 이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리서치 필요성

브리야트 종족은 그들의 지리적, 종교적 중요성으로 인해 다른 시베리아 미전도 종족에 비해 세계 선교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편이다. 특히 1990년대 이래 한국에서는 한 민족의 기원을 찾아서 바이칼 근처 브리야트 종족에 대한 민속학적, 민족학적 측면에서 학술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샤머니즘에 관한 연구가 많다.

그러나 기독교적 시각에서 수행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브리야트 종족에 대한 개관적인 자료조사는 이루어져 있으나, 좀 더 구체적이고 최신의 자료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브리야트 종족은 여러 종족의 연합체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브리야트 종족 내에서도 차후 국가별, 지역별, 언어별 세부조사의 필요성이 있다. 본 조사는 이에 앞서 이루어진 선행조사 성격을 가진다.

브리야트에는 꾸준히 여러 단기선교팀이 파송되고 있는데, 이들을 동원할 때 보다 효과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데도 리서치의 필요성이 있다.

³ 엄밀히 말하면 ‘라마불교’는 잘못된 단어이다. ‘라마’는 승려라는 단어이며, 라마불교는 스님불교라는 뜻이 된다. ‘티벳불교’라 표기하는 것이 올바른 표기법이겠으나 통상 사용되는 단어가 ‘라마불교’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본 보고서에서도 러시아의 티벳불교를 ‘라마불교’라고 표기한다.

2. 조사의 목적

- 1) 브리야트 종족 리서치를 통하여 전반적인 시베리아 소수 민족 선교역사와 특징, 현황에 대한 이해를 쌓는다. 차후 있을 시베리아 소수 민족 연구에 선행조사 성격을 가진다.
- 2) 브리야트 종족의 샤머니즘과 라마불교의 현황을 파악한다. 이들의 토속종교가 선교에 어떠한 방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 3) 기존의 브리야트 종족 자료를 보다 최신의 자료로, 선교적 관점에서 조사해 보충한다. 이를 통해 단기선교팀과 현장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교회에 종족을 알려 선교자원을 동원한다.

3. 조사지역

1) 몽골 울란바토르 (Ulaanbaatar)⁴

울란바토르는 몽골의 수도이다. 몽골어로 ‘붉은 영웅’이라는 뜻이다. 중국, 러시아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다. 수흐바토르(Sukhbaatar square) 광장을 중심으로 정부청사, 독립 영웅들의 묘, 국립극장, 호텔들이 늘어서있다. 개방 이후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은 마땅한 거주지가 없어 수도, 전기, 난방 시설이 미비된 열악한 환경인 게르 빈민촌에 무리 지어 사는 등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어려움도 있다. 한국의 1970~1980년대 도시와 같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 울란바토르는 한류열풍, 한국과의 교류 증가 등으로 도시 곳곳에서 한국간판이나 한국 식당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한국인 사업가, 선교사, 학생도 많은 편이다. 울란바토르에는 몽골국제대학(MIU)을 포함해서 한국인이 세운 대학이 4개 있다. 몽골은 주변의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보다 선교에 있어 개방적이고 사역의 기회도 많다. 역량 있는 현지 교회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인접한 주변국가도 많아 선교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국가로 기대된다.

⁴ 두산백과사전, www.encyber.com (검색일: 2009년 6월 29일)

2) 러시아 울란우데 (Ulan-Ude)

울란우데는 브리야트 공화국의 수도이다. 1666년 러시아에서 시베리아 정복을 위한 월동기지로 세워졌다. ‘붉은 강(red river)’이라는 뜻이다. 과거 전투로 인해 온 강이 붉게 물들었다는 데서 붉은 강이란 이름이 붙게 되었다는 설이 있다. 브리야트 종족에게 붉은 색은 아름다운 것을 의미하기도 해 울란우데는 ‘아름다운 강’이라는 뜻도 된다.⁵ 아름다움은 혁명을 상징하기도 한다.

‘샤먼의 바다’라 불리는 바이칼 호수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러시아 티베트 불교의 총본산 다산사원이 위치하고 있다. 시 중앙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레닌 두상으로 유명하다.

3) 바이칼 호수 (Baikal Lake)

‘시베리아의 푸른 진주’라고 불리는 바이칼은 뛰어난 자연경관뿐만 아니라 샤먼의 성지로도 유명하다. 샤먼의 바다, 샤먼의 고향이라고 불리는 바이칼 호수는 과거부터 신성시 여겨졌다. 태고의 원시성, 수천 여 종의 희귀한 생명체, 자연의 신비를 간직한 바이칼 호수는 브리야트 종족에게 상징적인 존재이다. 예로부터 물이 모여드는 곳은 ‘복지(福地)’로 통하는데 바이칼로 336개의 지류가 흘러 들어온다. 바이칼을 중심으로 수많은 설화와 신화가 존재하며 여러 샤먼 의식이 행해지기도 한다. 바이칼의 가장 큰 섬인 알혼(Olkhon) 섬에서는 세계 무당들이 모여서 일년에 한번씩 큰 제사를 치른다.

4) 키진가 마을 (Kizhinga)

수도인 울란우데에서 3시간 정도 떨어진 마을로서, 7,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브리야트 종족이 전체 마을인구의 50%를 상회하는 브리야트 마을이다. 종족조사를 위한 인터뷰 및 관찰조사에 적합하다. 한국 선교사가 세운 개신교회가 1개 있으며 러시아정 교회도 1개 있다. 본 조사 팀은 이곳에 있는 공립학교에서 한국어, 태권도 수업 및 문화 공연을 통해서 교류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5) 자바이스칼스크 변강 (과거 치타 주)

브리야트 공화국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변강 주이다.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⁵ 연합뉴스, “ ‘생명의 始原’ 바이칼을 가다 ”, (2005년 8월 14일)

지역이다. 울란우데에서 치타까지는 기차로 12시간이 소요되며 시차가 1시간 있다. 자바이칼스크 변경은 2007년에 행정단위가 개편되면서 새롭게 생긴 주로서 과거 치타 주와 아긴스크 브리야트 자치구가 합병되어 만들어졌다. 치타 시에는 시베리아 전역에서 가장 큰 개신교회인 구원교회(Salvation Church)가 있다. 치타 시 전체인구에 비해 브리야트 인구는 소수이다. 대부분의 브리야트 종족은 과거 아긴스키 브리야트 자치구였던 아가와 그 인근지역에 모여 산다. 본 조사 팀은 치타 시와 아가 자치구 근처인 모고예프 브리야트 마을을 방문했다.

4. 조사대상

브리야트 종족

브리야트 종족은 하나의 단일 종족이라기보다 여러 종족의 집합개념으로 볼 수 있다. 17세기를 전후해 그 정체성이 형성되었다고 본다. 16세기 까지만 해도 느슨한 형태의 종족연합인 브리야트 종족은 17세기 러시아인의 침병 코사크가 도래하면서 이들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었고, 이에 따라 브리야트 종족의 민족정체성을 갖기 시작했다.⁶

13세기 몽골세력이 현재 브리야트 지역으로 진출하면서 이미 그곳에 거주하던 블라가트족·에히리트족·호린치족 등이 브리야트 종족이라는 하나의 종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고, 17~18세기에 독자적인 언어를 갖게 되었다.⁷ 한편 브리야트 종족의 외모는 한국인과 상당히 유사하다. 북방계 몽골로이드(Mongoloid)로서 유전적으로 한민족과 그 계통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이런 계통적 유사성과 함께 설화, 민속신앙, 문화에 있어서도 여러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5. 현장조사기간: 2009년 7월 2일 ~ 2009년 7월 23일⁸

기간	조사 지역	조사 대상	조사 방법
2009/07/02	울란바토르	MIU 학생 5명	인터뷰
		MIU 교수님 3명	인터뷰
2009/07/03-	울란우데	ESSTU 교수님	인터뷰

⁶ 전봉수, “부라트인 민족정체성에 관한 연구”, (2008)

⁷ 네이버 블로그 치우의 꿈, www.blog.naver.com/chiu6279 (검색일: 2009년 6월 29일)

⁸ 이 기간은 현장에서의 조사시간만을 포함하는 기간이다. 본 조사팀은 2009년 3월에 구성되어 5개월 간 10주간의 학기 중 훈련(리서치 강의, 예배, 말씀약육, 캠프 2회, 리서치 실습, 선교세미나, 부서모임, 지역연구 모임 등), 10일간의 합숙훈련(강의, 예배, 사전조사, 팀워크 훈련, 역할 점검 등) 3주간의 현장조사, 10일간의 보고서합숙 과정을 통해 리서치를 수행하였다.

2009/07/04		박물관 연구원	인터뷰
2009/07/05- 2009/07/07	바이칼	ESSTU 학생 4명	인터뷰
2009/07/07- 2009/07/08	쌀다스키 교회	교회 신자 2명	인터뷰
2009/07/08- 2009/07/14	키진가 마을	현지교회 목회자, 사모님 및 교인 2명	인터뷰
		학교 선생님 3명	인터뷰
		마을 주민 2명	인터뷰
2009/07/15	이볼긴스키 다찬	가이드	
	이볼가 교회	현지교회 목회자	
2009/07/16- 2009/07/19	치타	현지교회 목회자 2명, 사역자 1명, 교인 1명	인터뷰
		가정방문	가정방문
	마고이드	현지교회 목회자	인터뷰
		교인 2명	인터뷰
		주민	가정방문
2009/07/20	울란우데	현지 선교사	인터뷰
2009/07/22	울란바토르		

6. 조사인원

1)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러시아 현지 조사팀⁹ 4명 (MnBT팀, MIU팀 협력)

	이름	학부 (학번)	역 할
1	전해솔	국제어문학부 (08)	디렉터, 미디어부장
2	정태경	글로벌리더십학부 (09)	예배부장

⁹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의 선교훈련단체인 GFR(Global Field Research)에 소속된 9개 지역조사팀 중 RFR(Russia Field Research) 훈련팀을 말한다. GFR훈련체계의 1단계인 훈련팀(Training Team)은 미전도 종족 조사에 중점을 두고 훈련되며, 다음 단계로는 주제별 현장조사에 중점을 둔 리서치전문가과정(Research Expert Course)과 리서치단기선교사과정(Research Missionary Training Course)이 있다.

3	박성용	글로벌리더십학부 (09)	미디어부장
4	김영훈	글로벌리더십학부 (09)	총무부장

2) 통역자 3명

	이름	소속	역할
1	아야나	MIU 학부생	러시아어 통역
2	굴미라, 에리제나	MIU 졸업생	러시아어 통역
3	에스더	MIU 졸업생	몽골어 통역

7. 조사방법

1) 사전조사

(1) 문헌 조사

① 인터넷 조사

BUM, 브리야트선교연합, www.buryatunion.com

브리야트 공식 영문 홈페이지, www.egov-buryatia.ru/eng

소련선교회, 러시아선교회, 알타이선교회

② 문헌 조사

국립민속박물관. 국제샤머니즘 학술세미나 발표집, (2007)

김종록. 『바이칼(소설가 김종록의 북방탐험기)』 (문학동네, 2002)

전봉수. 다언어사회에서 소수민족 언어의 소멸원인, (2007)

전봉수. 부랴트인 민족정체성에 관한 연구, (2008)

하현준. 『철길따라 대륙을 누빈다』 (삼우빈, 2005)

안나 레이드. 『샤먼의 코트』 (미닷스박스, 2003)

마르꾸 켈링. 『티벳불교권 선교』 (도서출판NCD, 2003)

제임스 포사이스. 『시베리아 원주민의 역사』 (솔, 2009)

(2) 전문가 인터뷰

몽골국제대학교(MIU) 고재형 교수

2) 현장 조사

(1) 관찰 조사

① 울란바토르

몽골국제대학원

② 울란우데

동시베리아기술대학(ESSTU), 이볼긴스키 다찬(Ivolginsk Datsan), 시장, 백화점, 학교, 극장, 광장 등

③ 키진가

브리야트 마을, 소시지공장, 공립학교, 관공서

④ 치타

현지교회, 광장, 자연사박물관, 지방교회, 알코올중독치료센터, 유스캠프 (Youth Camp)

(2) 인터뷰

① 전문가 인터뷰

울란우데, 썰다스키, 이볼가, 치타, 마고이뜨 현지교회 사역자
브리야트 박물관 연구원

② 일반인

치타, 마고이뜨 가정집 방문 (전직 역사교수)
동시베리아기술대학 학생 외

(3) 영상 조사

① 9,288km 시베리아횡단열차 2부. 샤먼의 바다, 바이칼(EBS 세계테마 기행, 2008년 04월 08일)

② 부리야트의 고향, 바이칼 (KBS 걸어서 세계속으로, 2008년 10월 25일)

8. 조사 성과와 한계점

본 조사 팀은 한동대학교 생명과학부 학부생과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MnBT (Mission and Biotechnology)팀과 몽골국제대학교(MIU) 생명식품과학부 팀과 함께 동행하였다. 같이 동행한 팀 멤버는 총 17여명이었으며 이 중에는 브리야트 종족 3명과 몽골 학생, 기타 시베리아 소수민족 학생도 있었다.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제를 하며 몽골과 시

베리아 전역의 상황을 접할 수 있었다. 조사 첫 주에는 브리야트 공화국에서 가장 큰 2개의 대학 중 하나인 동시베리아기술대학에서 세미나와 교제의 시간을 가지며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연합 팀의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리서치뿐 만 아니라 한국어 수업, 한국문화공연, 세미나 등 다양한 사역의 기회가 있었다. 사역을 통해 복음의 접촉점을 발견할 수 있었고, 여러 인터뷰 대상자를 만나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동부 브리야트(바이칼 동쪽의 브리야트 공화국과 아긴스키 지역)의 주요 지역들과 여러 현지교회를 방문하였다. 다양한 형태의 현지교회를 접할 수 있었으며, 사역자들의 전반적인 어려움과 지역마다 다른 상황들을 알 수 있었다. 3주라는 일정 속에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 심층적인 인터뷰는 불가능 했으나, 먼 시점에서 전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브리야트 상황을 파악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조사 팀의 성격과 다른 사역 위주의 팀과 함께 동행하여 인터뷰 조사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볼 수 있었지만 그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부족하다. 사전에 준비가 미흡해서 행정처리 문제로 시간을 낭비한 적도 많았다. 인터뷰 대상이 교회 사역자와 신도, 대학생에게 치중되어 있었으며, 종족의 일반적인 삶의 수준을 사는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 할 기회가 부족했다. 현장 인터뷰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대부분의 자료를 인터넷과 논문조사에서 찾았다는 것도 아쉬운 점이다. 그렇지만 본 리서치는 시베리아 종족리서치의 첫 발걸음으로 현지 교회, 현지인과 자연스럽게 교류를 쌓았다는 점,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리서치의 방향성을 잡았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II. 들어가는 말

브리야트 종족은 시베리아 30여 개 소수민족 중 가장 큰 종족이다. 전체인구는 100만 명 정도로 추정되며 몽골, 중국, 러시아 3개국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이런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브리야트 종족은 시베리아의 관문종족이라고도 불린다.

브리야트 종족을 연구하는 것은 다른 시베리아 종족을 이해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시베리아 소수민족의 주요종교는 샤머니즘 혹은 티벳불교이다. 브리야트 종족은 러시아에서 두 종교의 전파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 종족이다. 브리야트 종족의 주거지인 바이칼 일대에서 발원한 샤머니즘은 주변 시베리아 종족과 몽골, 한국에 까지 널리 전파되었다. 사하(야쿠트), 에벤키, 나나이 등 많은 소수민족이 여전히 샤머니즘을 자신의 전통종교로 인식하고 있다. 비록 구소련 시대를 거치며 현대 샤머니즘은 많이 약화된 경향이 있지만 시베리아 종족에 알아보기 위해서 샤머니즘의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시베리아에서 티벳불교를 가장 먼저 받아들인 집단도 브리야트 종족이다. 몽골과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17세기 몽골의 승려들이 내전을 피해 시베리아로 왔을 때 가장 먼저 만나게 된 종족이 브리야트 종족이다. 시간이 흐르며 브리야트의 이웃종족인 투바, 칼딕족까지 티벳불교가 전파된다. 현재도 브리야트 공화국, 투바 공화국, 칼딕 공화국은 강한 티벳불교 국가로 존재한다. 브리야트 공화국의 수도인 울란우데에 있는 이 불긴스키 사원은 시베리아 티벳불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곳이다.

브리야트 종족 시베리아 선교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는 이미 많이 알려진 종족이다. 선교적인 관심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한민족의 기원을 찾아서 바이칼과 브리야트 종족을 연구하는 민속학자, 민족학자들이 많다. 이미 연구된 자료가 많기 때문에 시베리아 종족리서치를 처음 시작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사하나 에벤키족 등 시베리아 소수민족을 조사하기에 앞서 브리야트 종족을 조사하는 것이 시베리아의 전반적인 이해와 차후 조사에 도움이 될 것이다.

Ⅲ. 브리야트 종족의 현황

1. 일반개요

1) 지역개관

브리야트 공화국(Buryat Republic)은 중국과 몽골의 접경 부근에 있으며 시베리아횡단철도(TSR)과 몽골횡단철도(TMR)이 만나는 철도교통의 요충지이다. 이곳은 시베리아의 푸른 진주라 불리는 바이칼과 러시아 라마불교의 총본산인 이불긴스키 사원으로 유명하다. 왼쪽으로는 투바 공화국과 이르쿠츠크주를, 오른쪽으로는 자바이칼스크 변경주(과거 치타주)를 접하고 있다.



〈그림 Ⅲ-1〉 공화국 문장

17세기 러시아의 시베리아 정복 이래 이 지역은 제정러시아에 속하게 되었다. 사회주의 혁명 이후 1923년 브리야트-몽골 소비에트 사회주의 자치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소련의 일부가 되었다. 범몽골주의를 우려한 소련이 1958년에 국가명에서 몽골을 빼고 브리야트 자치공화국으로 개칭하였다. 소련 해체 이후 1992년 러시아연방정부와 18개 구성자치공화국들의 신 연방조약 체결에 따라 현재의 브리야트 공화국이 되었다.

몽골 국기에 있는 소염보가 브리야트 공화국의 국기에도 그려져 있다. 소염보는 불꽃모양과 둥그런 원, 초승달 모양이 그려진 모양이다. 수부르간에 나타나는 우주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상징요소의 일부로서 하늘, 물, 공기를 의미한다. 이는 브리야트 종족의 우주관을 보여준다.

2) 정체성

브리야트(Buryat)는 부랴뜨(Buryadd), 보리야드(Boriad)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브리야트 종족은 바이칼 주변 지역부터 몽골, 중국 접경지역까지 넓게 분포하고 있는 여러 종족의 연합체이다. 17세기 러시아 코사크용병의 시베리아 정복전쟁에 대항하여 바이칼 인근지역 씨족, 종족 등이 ‘브리야트’라는 새로운 민족정체성을 형성하였다. 지역과 혈통에 따라 크게 4가지 블라갓뜨, 에히릿뜨, 호리, 혼고도르 세부종족으로 정체성이 나뉘며, 지역에 따라 언어도 약간씩 다르다.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서 민족정체성이 규정되기도 하나 최근 젊은이들 대부분은 브리야트어를 잘 구사하지 못한다. 종족언어의 보존은 정체성 유지와도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러나 러시아어가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고, 직장이나 학교에서 러시아어를 이용하기 때문에 정작 브리야트 종족이 종족 언어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¹⁰

바이칼 호수를 기준으로 동서 브리야트 종족 간에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서쪽에는 주로 샤머니즘이, 동쪽에는 주로 라마불교가 강하다. 전통종교 역시 민족정체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된다. 언어로서의 민족 구분이 약화됨에 따라 종교가 민족정체성의 지표로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브리야트라는 어원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다. 첫 번째는 산림족이라는 뜻의 ‘바르구뜨’에서 유래했다는 견해이다. 유목민이었던 몽골인들이 바이칼 주변 산림에 사는 이들을 타자화하여 산림민으로 불렀을 것으로 추정한다. 두 번째는 회피하다, 기피하다는 브리야트어인 ‘브리’에서 유래했다는 견해이다. 칭기스칸이 흠어진 종족을 모아 타타르족 원정을 갈 때 브리야트 종족이 회피하였기 때문에 붙여졌다는 것이다. 러시아어로 형제를 지칭하는 ‘브라트’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다.¹¹

3) 인구

2002년 기준 브리야트 공화국의 총 인구는 981,238명이다. 공화국 내의 최다민족은 러시아인(70%)이며 브리야트 종족은 24% 가량 된다. 19세기에 농노해방과 시베리아 횡단철도 건설 등으로 많은 러시아인이 대량으로 시베리아에 유입되면서 원주민과 러시아인의 비율이 역전되었다. 여전히 압도적으로 러시아인의 수가 많지만, 공화국 내에서도 95대5의 비율만을 유지하고 있는 여타 소수민족보다 상황이 나은 편이다.¹² 공화국의 전체 인구는 17세기 이래 계속해서 증가하였다.

공화국 내 20개의 라이온¹³이 있다. 보통 브리야트 종족이 마을인구의 50%를 상회하면 브리야트 마을이라고 부른다. 본 조사 팀이 방문한 키진가 마을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브리야트 마을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직업과 학업을 위해 도시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브리야트 공화국 이외에도 브리야트 종족이 모여 살고 있는 지역을 자치구로 지정해놓기도 한다. 최근 자치구가 일반행정구역으로 통합되었지만 여전히 과거 이르쿠츠크

¹⁰ 전봉수, 부랴트인 민족정체성에 관한 연구, (2008)

¹¹ 브리야트 선교연합(BUM), www.buryatunion.com (검색일: 2009년 7월 26일)

¹² 러시아 연방 내 21개 공화국 중 소수민족이 과반수를 상회하는 곳은 잉구쉬쨪야, 추바쉬야, 체첸니야, 투바 공화국 정도이다.

¹³ 러시아의 행정단위로서 우리나라의 군, 구 정도에 해당한다.

주의 우스트-오르다 지역, 치타주의 아긴스키 지역에 많은 브리야트 사람들이 모여 산다. 일부는 몽골과 중국 내몽골 지역에 살고 있다. 러시아 혁명 때 내전을 피해 많은 브리야트 종족들이 중국과 몽골 쪽으로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

4) 지리

울란우데는 동시베리아 북부의 타이가(Taiga)와 남부의 중앙아시아 스텝(Steppe)이 만나는 지역으로 몽골에서 발원한 실링가(Selenga)강과 부라찌야 공화국 서북부에서 흘러오는 우다(Uda) 강이 만나는 지역이다.¹⁴

브리야트 공화국 전체적으로 산이 많고 저지는 적으며 산맥·고원·분지·하곡들이 복잡하게 얹혀 있는 지형이다. 바이칼호의 남서부는 해발고도 3000m가 넘는 사얀 산맥이 솟아있고 북동부에는 비툼 고원이 있다. 습기가 많고 침엽수로 덮인 타이가가 영토의 70%를 차지하는 반면 산맥 사이의 여러 분지와 강 유역은 스텝 또는 삼림스텝으로 주요 농업지역이다.¹⁵

5) 역사

브리야트 종족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보통 13세기 초 기록된 몽골비사에 등장하는 보리야드(Buriyad), 바르구진, 호리-토마드족을 브리야트 종족의 조상으로 본다. 단일 종족이 아닌 여러 종족의 연합으로 브리야트 종족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여러 브리야트 종족의 민족기원설화에서도 나타난다.¹⁶

13세기경 몽골인들은 바이칼 일대에 산림지역에 흩어져 살던 여러 종족을 ‘산림민’으로 규정짓고 불렀다. 느슨한 연합형태로 존재하던 브리야트 종족은 17세기 코사크용병의 침략에 대항하여 싸우면서 민족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브리야트 종족은 코사크와 러시아 군대가 타타르족 이후에 처음으로 만난 강력한 상대였다.¹⁷ 다른 시베리아 지역에서는 러시아인의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우세했기 때문에 선주민들은 저항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채 정복당하였다. 그러나 브리야트 종족과는 40년간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를 ‘브리야트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브리야트 종족이 다른 시베리아족과 달리 조직적으로 대항하고 장기전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15~16세기경

¹⁴ 전봉수, “부랴트인 민족정체성에 관한 연구”, (2008)

¹⁵ 네이버 블로그 치우의 꿈, www.blog.naver.com/chiu6279 (검색일: 2009년 6월 29일)

¹⁶ 우리나라의 선녀와 나뭇꾼과 유사한 호리 민족기원설화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출처: 전봉수, “부랴트인 민족정체성에 관한 연구”, 2008)

¹⁷ 전봉수, “부랴트인 민족정체성에 관한 연구”, (2008)

몽골 할하족(Khalka)¹⁸의 지배에서 벗어나고자 종족 간의 연합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브리야트 종족은 13세기 이후 4세기 동안 지배를 받았던 몽골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났으나 새롭게 제정러시아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 피정복민이자 이교도인 브리야트 종족은 차별과 동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제정러시아 치하 신민(臣民)이었던 브리야트 종족은 공산혁명 이후 인민(人民)으로 보다 나은 대우를 받게 된다. 그러나 공산정권의 종교정책에 따라 샤머니즘과 라마불교는 철저한 탄압을 받는다. 90년대 초 소련이 해체된 이후에는 숨죽였던 전통종교가 다양한 방식으로 빠르게 부흥하고 있다.

6) 요약

브리야트 종족은 여러 종족의 연합체의 성격을 띄기 때문에 언어도, 성향도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지역별, 국가별로 다른 브리야트 종족에 대한 세부연구가 필요하다. 과거 정복자와 피정복자의 불편한 관계였던 러시아와는 현재 평화롭게 지내고 있으며 사회적, 경제적으로 별다른 차이 없이 지낸다. 그러나 여전히 민족성은 뚜렷이 존재하므로 러시아인과는 다른 선교적 접근이 필요하다. 민족성의 구심점이 되는 것이 종교라는 것에 유념해야 한다.

2. 정치분야

1) 개요

현재 러시아 연방정부의 대통령은 2008년 5월 선출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Dmitry Anatolyevich Medvedev)이다. 그러나 실권은 총리직에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가지고 있다. 푸틴은 외부에서 지나친 권위주의적 통치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정작 러시아 국민에게는 경제성장을 이끈 장본인으로 인기가 높은 편이다. 보통 사람은 정치 그 자체보다는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제발전에 더 관심이 많다. 러시아 내 민족주의적인 성향은 일부 지역에서 소수민족에게 위협적으로 나타나기도 하나 브리야트 공화국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

브리야트 공화국은 러시아 연방에 속한 21개 공화국 중의 하나로서, 일정 정도의 자치권을 부여 받으면서 외교 및 군사권은 러시아 연방에 이양되어 있다. 공화국은 자

¹⁸ 몽골전역에 분포하는 종족으로 북아시아에 거주하는 대표적인 몽골종족이다.

체적인 헌법, 입법권 행정권 및 자체언어를 보유하나 독립 국가로서의 지위는 불가능하다. 1994년에 브리야트 공화국의 첫 번째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브리야트 종족을 대표하는 정당, 정치인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러시아 연방정부의 영향력이 강하다. 브리야트 공화국의 재정독립비율이 약 20%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 정치구조

1991년 소비에트 연방해체 후 등장한 러시아 연방은 국가의 출발부터 다민족의 정치적 합의로 만들어졌다. 때문에 중앙정부의 소수 민족에 대한 정책은 대체로 일방적인 통보와 집행보다 중앙정부의 우위를 바탕으로 둔 민족공화국과의 합의로 이루어져왔다.¹⁹ 소비에트 연방시절 공화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등은 소련 해체과정에서 독립을 선언하였으며 당시 자치공화국이었던 브리야트 자치공화국, 투바 자치공화국 등은 러시아 연방 안에서 공화국으로 승격되었다.

브리야트 공화국의 현 대통령은 2007년 7월부터 집권한 바체슬라브 나고비친(Vyacheslav Nagovitsyn)이다. 전직 대통령은 레오니드 포타포프(Leonid Potapov)로서 1994년에 브리야트 공화국의 첫 대통령으로 당선 3번 대통령직을 연임하였다.

브리야트 공화국 의회에 상당수의 브리야트 종족이 진출해있지만 브리야트의 사람들은 이들 대부분이 자신의 이권만 챙기는 전직 관료 출신이라고 말한다.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과거 전직 관료인 경험으로 의회에 진출하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기는 경우가 많다.²⁰

3) 행정구조

러시아 연방의 행정구조는 연방, 연방특별시, 공화국, 일반 주와 변경 주, 소수민족을 위한 자치주와 자치구, 라이온과 시와 도시형 주거지, 지방하부단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하관계를 이루고 있다. 러시아는 1993년 12월 제정된 러시아 연방 헌법에 따라 총 89개의 연방 주체로 구성되어 출발하였다. 그러나 2003년부터 일부 소수민족 자치구 및 작은 행정단위가 합병되어 현재연방 구성주체는 83개로 줄어들었다.²¹

브리야트 종족이 모여 사는 우스트-오르다 브리야트 자치구도 2006년 4월 16일 주

¹⁹ 전봉수, “다언어사회에서 소수민족 언어의 소멸원인”, (2007)

²⁰ Ibid

²¹ 현재 83개 연방주체는 다음과 같은 행정단위로 구성되었다. 21개 공화국, 46개 주, 9개 변경, 1개 자치주, 4개 자치구, 2개 시(모스크바, 상트 페테르부르크)

민투표에 의해 이르쿠츠크주로 합병이 결정되었으며, 2007년 3월 11일 주민투표에 의해 치타주와 아긴-부랴트 자치구가 자바이칼스크 변경으로 합병이 결정되었다. 이와 같은 소수민족 자치구의 합병 및 통합은 소수민족 정체성 유지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4) 요약

러시아 연방정부와 브리야트 공화국 정부는 큰 충돌 없이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재정적인 이유로 연방정부의 영향력이 강하며, 의회에는 민족의 권익을 생각하는 정치인 보다는 자신의 이권을 챙기며 상부의 비위를 맞추는 정치인이 많다. 브리야트 종족의 발전과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서는 자신들의 사리사욕이 아닌 민족의 장래를 위해 고민하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3. 사회분야

1) 개요

340여 년간 러시아인과 함께 살며 동화된 브리야트 종족은 다른 민족과 별다른 충돌 없이 평화롭게 지낸다. 그들은 특별한 사회적 모임보다는 주로 친족을 중심으로 모임을 가진다. 브리야트 공화국의 도시화가 많이 진행되어 과거와 같은 끈끈한 대가족관계는 많이 약화되었으나 여전히 친족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2) 가족구조

지방에 있는 시골과 소도시의 경우 친척끼리 인근에 사는 경우가 많다. 대도시에는 핵가족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지만 여전히 친척간 왕래는 잦은 편이다. 특히 사갈 간²²과 같은 명절 때 친척 간 모이는 시간을 갖는다. 가족 구조 내 여성차별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전통적인 특징이라기보다 공산주의 이후 남녀평등 의식이 자리잡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남자가 알코올 중독으로 가정에 소홀하고 경제적인 책임을 지지 못하는 경우, 여자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예가 많다.

젊은 남자들은 대부분 18세에서 25세 사이에 결혼을 한다. 브리야트 종족은 브리야트 종족끼리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1990년대 이후부터 그러한 규칙이 깨지

²² 사갈 간은 우리나라의 설날과 같이 새해를 기념하는 브리야트 종족의 명절이다.

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러시아 사람과 브리야트 종족이 결혼하는 경우가 많다. 여전히 같은 종족끼리 결혼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지만 많은 이들은 결혼상대가 다른 민족인 것에 크게 상관하지 않는다.

3) 주변 종족 및 이웃과의 관계

브리야트 종족은 브리야트 공화국 내 최다민족인 러시아인과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갈등이나 차별은 없다. 또래관계에서도 민족과 상관없이 우정을 쌓는다. 그러나 브리야트 공화국의 현지 사역자는 침략과 수탈의 역사 때문에 러시아인에 대한 정리되지 않은 서운한 감정이 내재되어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브리야트 종족의 이웃은 몽골인, 야쿠트인, 투바인 등이다. 브리야트 종족은 다른 종족과도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지만 몽골인과의 관계에서는 애매한 모습을 보인다. 한 때 범몽골주의를 주장하며 브리야트 종족과 몽골인이 같은 뿌리라고 주장하던 민족주의자들이 있었으나 그와 같은 생각이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외모, 풍습 등을 볼 때에 몽골과 연관성을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을 동일한 뿌리인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는 브리야트 종족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4) 사회적 모임 및 단체

브리야트 종족의 사회적 모임은 주로 축제 때 이루어진다. 작은 마을의 경우 축제나 명절 때 마을 사람 모두 모이기도 하며, 마을의 대소사가 있을 때 함께 제사를 지내기도 한다. 모스크바나 상트 페테르부르크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정기적인 브리야트 모임이 있다. 그 외 보통 브리야트 마을에서는 특별한 사회적 모임단체보다는 인근에 사는 친인척과의 교류가 활발하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모임도 활발하다. 러시아인이 많이 쓰는 웹사이트는 V Kontakte(www.vkontakte.ru)이다. 주로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많이 이용하며 싸이월드(Cyworld) 혹은 페이스북(Facebook)과 비슷한 기능을 담당한다.

5) 특수 절기

큰 민족 명절은 1월 1일 새해를 기념하는 사갈 간(White moon)과 매년 여름 열리는 수르하르반이다. 사갈 간의 경우 불교도인 동브리야트 종족들이 기념하는 명절인데 길게는 한달 가량 축제가 지속된다. 가족 내 연장자의 집부터 찾아 뵙는 것이 예의이고 간단한 선물을 주고 받기도 한다. 전통음식인 보츠와 유제품 종류의 하얀 음식을 나누

어 먹는다.

수르하르반은 매년 여름에 열리는 브리야트 종족들의 민속 경기축제이다. 몽골의 나담축제와 유사한데 전통 스포츠인 씨름, 경마, 활 쏘기와 이륜마차 경주, 체스 등 각종 경기, 민속축제를 즐길 수 있다. 과거에는 씨족 별로 모여 기념하였으나 현재는 마을 단위로 모인다. 울란우데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경기장을 빌려 경기를 진행하기도 한다. 주로 브리야트 종족이 참석하지만 러시아인도 원하면 참관할 수 있다.

6) 요약

브리야트 종족은 가족과 친족 간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 지방에 사는 경우 친족 간 왕래가 잦으며 대소사를 함께 공유한다. 도시에 사는 경우에도 한 달에 한 두 번, 명절 때는 꼭 서로 방문한다. 가족과의 유대가 강한 만큼 기독교로 개종했을 때 주변 친척들로부터 오는 압력도 센 편이다. 다른 종족과 별다른 갈등은 없다. 과거에 있었던 역사로 인해 러시아인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발견하기 어려웠다. 같은 민족끼리 더 유대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나, 다른 민족과의 일상적인 교제에 있어서 구별되거나 차별대우 받는 일은 거의 없다.

4. 경제분야

1) 개요

1985년 이래 소련에서 시작된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 개혁) 정책의 영향력으로 브리야트 공화국은 통상, 무역분야에서 외국과의 관계가 긴밀해졌고, 군수산업은 민간산업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통제경제에서 자율경제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자율경제로의 전환과 경제개발을 위해 한국의 자본, 지식, 경험, 기술을 유치하고자 풍부한 광물자원, 무한한 산림자원, 세계 최대의 담수호인 바이칼 주변의 관광자원을 주 무기로 한국과의 합작 은행설립, 과학기술의 상호협력, 한국 기업들의 직접투자 및 합작 토지를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회 간접자본확충, 세금우대조치, 투자여건조성, 경제적 조건 개선 등을 통해 적극적인 한국의 경제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2) 산업구조

도시에 살지 않는 대부분의 브리야트 종족은 농사와 목축에 종사하고 있다. 그들은

많은 수의 말, 순록, 돼지, 양, 염소들을 목축해왔다. 호수 서쪽의 브리야트 종족은 과거 수세기 동안 러시아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이유로 호수 동쪽의 브리야트 종족보다 정착된 생활을 하고 있다. 그곳의 브리야트 종족은 대부분 교육을 더 많이 받고 과학적이고 사무적인 직종에 더 종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 도시로 모여드는 상황이다. 브리야트 공화국의 4/5는 산림이어서 목재 산업에도 많은 인력이 투입되며, 광업에도 많이 종사한다. 브리야트 공화국의 무역구조는 수입에 의존하는 편이어서 러시아나 중국산 물품이 많다.

3) 발전수준

도시는 현대 시설을 갖추며 발전했으나 외딴 산간 마을은 사회 문화적 시설이 부족하고, 수도시설이 없어 지하수를 사용하는 등 격차가 심하다. 러시아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이 불안해 환율변동이 심하고 빈부격차가 크다. 브리야트 공화국 예산의 상당부분은 러시아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예산 편성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는다. 한편 1995년 10월엔 브리야트 공화국의 대통령이 한국자본의 투자유치를 위해 한국에 방문하기도 했다.

4) 주요 산품

브리야트 공화국의 광산자원으로는 석탄, 텅스텐, 몰리데늄, 보오크사이트, 금, 흑연, 철, 인산염, 인회석, 섬광석, 석회암 수정, 백운석, 납, 아연, 주석등이 있다.

수도 울란우데를 중심으로 형성된 중공업 회사들은 선박, 기관차 정비 및 생산, 철로건설, 항공기, 농기계, 전기 및 전기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경공업 분야에는 2개의 소규모 의류공장과 소규모 경공업 제품사가 기타 가방, 신발, 여성용 내의류, 스타킹, 양말, 화장품, 비누 등을 생산하고 있다.

목재 산업은 브리야트 공화국의 국가경제 및 총 수출에서 주도적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이 외에 새와 곰을 주제로 한 정교한 금속공예와 목각예술이 발달해 이와 관련된 공예품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화려한 자수의 전통 의상 제작도 이루어 지고 있다.

5) 요약

브리야트 공화국에는 수많은 자원이 묻혀져 있고 수도 울란우데를 중심으로 공업이 발달하였다. 그러나 지방의 경우 일자리 부족현상이 심하고 일용직으로 최저생계비 선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실직자가 많은 편이다. 따라서 한국의 기술력과 브리

야트의 풍부한 자원과 협력하여 공업지대를 더 탄실히 세워 일자리를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5. 생활분야

1) 개요

전반적인 브리야트 종족의 생활양식은 러시아인과 동일하다. 특수한 민족 절기나 보츠와 같은 민족 고유의 전통음식을 제외하면 생활 면에서 러시아인과 크게 다른 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키진가와 같은 지방 소도시에서는 자신의 밭을 가꾸며 자급자족하는 사람도 상당수 있었다. 빈부의 차이에 따라 다르지만 이런 마을의 경우 난방이나 편의 시설 등이 잘 구비되어 있지 않고 전반적인 생활환경이 열악한 곳이 많다.

2) 식생활

브리야트 종족은 과거에 유목생활을 했기 때문에 고기와 우유로 만든 음식을 많이 먹는다. 고기는 돼지고기, 양고기, 소고기 등을 먹는다. 우유로는 치즈, 크림, 요구르트 등을 만들어 먹는다. 러시아의 영향으로 빵과 샐러드는 거의 매끼 먹는다. 발효를 많이 시킨 빵도 있는데 향이 시큼한 것이 특징이다. 샐러드에는 붉은 무를 많이 넣고 생선을 넣기도 한다.

대표적인 음료는 크바스와 캄포트가 있다. 크바스는 호밀빵을 양조해서 만드는데 알코올을 약간 첨가한다. 크바스는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노점상에서 판매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캄포트는 말린 사과, 말린 복숭아, 말린 살구, 말린 자두, 말린 배 등을 물에 끓여서 설탕을 넣어 먹는다. 건더기는 버리지 않고 같이 먹는데 조금 신 맛이 난다.

전통음식에는 보츠가 있다. 보츠는 돼지고기, 소고기, 양파를 다진 것을 속으로 한 만두이다. 위쪽으로 감싸서 위에 구멍을 남기는데, 삶거나 찌 후에 이 구멍으로 육즙을 빨아먹고 만두를 먹는다.

3) 주거

브리야트는 전통적으로 몽골과 마찬가지로 ‘유르트’라 불리는 게르에 거주하였다. 현재 유르트는 박물관이나 관광을 위한 장소에서만 볼 수 있다. 보통은 러시아 가옥형

태와 마찬가지로 목재 집에 산다. 목재 집은 평지보다 높게 짓는다. 집 바닥을 파서 창고를 만들어 감자를 보관하고 냉장고처럼 쓰기도 한다. 도시의 건물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재래식 화장실이 대부분이다. 도시로 가면 아파트도 볼 수 있고 도심주변에는 전통적인 가옥도 볼 수 있다.

러시아의 전통 사우나인 바냐를 소유하고 있는 집도 있다. 바냐는 사우나 밖에서 땀감을 때우고 사우나 안에서 그 불로 물을 데우는 증기 사우나 형식이다.

시골에서는 지하수를 쓴다. 지하수는 깨끗해서 바로 식용수로 써도 될 정도이다. 도시에서도 보통 지하수를 쓰며, 아파트와 같은 층수가 있는 건물에서는 상수도를 쓴다. 지하수를 쓸 경우 소형 물 저장고를 세면대 등에 설치해 물을 저장해 놓고 사용한다. 시골의 경우 생활 하수나 음식물 쓰레기는 화장실에 버린다. 지하수를 쓰는 곳에서는 하수처리 시설이 잘 되어있지 않다.

4) 교통

대표적인 대중교통은 버스이다. 시내버스는 거리에 상관없이 10루블만 내면 된다. 울란우데 도심에는 전차도 다니는데 거리에 상관없이 8루블이다. 택시는 흥정을 통해 가격을 책정한다. 보통 100루블(한화 약 5000원)이 기본요금이다. 마이크로 버스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중고 봉고차를 많이 쓴다. 거리에 상관없이 12루블이지만 노선을 벗어난 곳을 가려면 흥정이 필요하다. 대중 교통 중에는 마이크로 버스가 가장 빠르다.

울란우데에 시베리아 횡단철도 역이 있기 때문에 철도교통을 이용하기 편하다. 도로는 전국적으로 발달해 있지만 보통노면이 고르지 않다. 수도인 울란우데 또한 도로상태가 좋지 않은 곳이 있다. 겨울에 바이칼 호수는 얼면 얼음이 80cm에서 120cm까지 두꺼워지기 때문에 호수 위로 자동차도 지나다닐 수 있다.

승용차의 50% 정도는 오래된 일본차이다. 중고 일본 차가 싸고 튼튼하여 많은 이들이 선호한다. 10년을 넘은 차를 보는 것도 어렵지 않다.

5) 여가활동

본 조사 팀의 인터뷰에 따르면, 청소년, 대학생 층의 경우 TV시청을 즐기는 경우가 많았다. 시트콤, MTV 등이 인기 있는 채널이다. 도시 사람들은 극장에서 연극이나 오페라 등을 즐기기도 한다. 러시아 작품과 브리야트 작품을 공연하는 극장이 각각 있다. 시골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은 특별한 문화시설이 없기 때문에 여가 시간이 생기면 대부분 집 정리를 하거나 바냐(러시아식 사우나)를 하며 시간을 보낸다.

6) 요약

도시의 경우 주거, 교통, 문화 시설 등이 잘 갖추어져 있지만 농촌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곳이 많다. 도시에서 멀어질수록 옷이나 생필품의 가격도 비싼 편이다. 지역사회에 필요한 적절한 자원들을 통한 비즈니스 선교, 문화센터 건립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는’ 선교보다는 그 지역사회의 자체적인 발전을 고려해 현지주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6. 교육분야

1) 개요

러시아는 원칙적으로 전 국민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구 소련 체제 붕괴와 더불어 교육의 다양화, 개별화, 민주화를 지향하고 있다. 초, 중, 고교 교육은 무상교육이며, 의무교육기간은 11년이다. 취학 전 유치원이나 탁아소도 매우 저렴하거나 무료이다. 일반적으로 6~7세에 의무교육을 시작하여 17세 전후에 고교 졸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등교육 과정은 종합대학(university)과 단과대학인 연구소(institut), 아카데미(academy)로 나뉜다. 보통 대학의 수학연한은 5년이며 최근에는 학부과정 4년, 석사과정 2년으로 수학하는 경우도 많다.²³

2) 현황

브리야트 공화국에는 총 605여 개의 학교가 있으며, 이 중 456개는 시골에, 148개는 도시지역에 있다. 98년 통계에 따르면 그 해 193,944명의 학생이 공립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²⁴

본 조사 팀이 방문했던 키진가 마을에는 총 3개의 학교가 있다. 공립학교인 제1학교와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학교, 기술분야 전문대가 있다. 일반적으로 한 학급당 30명 내외의 학생이 있다.

민족학교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 브리야트어 수업을 한다. 학교마다 브리야트어 수업시간은 다르다. 도시의 경우 민족어 수업이 없는 경우도 있으나 2009년부터 정책적으로 브리야트 공화국에서 브리야트어 수업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브리야트

²³ 네이버 블로그 자작나무, www.blog.daum.net/ruy0903, (검색일: 2009년 6월 28일)

²⁴ 브리야트 영문 공식홈페이지, www.egov-buryatia.ru/eng (검색일: 2009년 7월 23일)

어 수업에서는 언어뿐만 아니라 역사, 문화, 지방간 언어와 문화 차이를 가르친다. 그러나 실제로 가정에서 브리야트어를 쓰지 않는 이상 학교에서 배우는 자국어시간은 외국어를 배우는 수준이어서 브리야트 마을을 제외한 도시의 젊은 학생들의 경우 대부분 브리야트어를 잘 구사하지 못한다. 선생님의 월급은 보통수준이나, 업무량에 비해 급여수준이 적은 편이어서 어려움이 있다.

3) 인식

러시아 전체적으로 교육열이 높은 편이다. 최근에는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지방에서도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고등교육을 위해 키진가와 같은 소도시에서 울란우데로, 울란우데에서 모스크바나 썬트 페테르부르크 등의 대도시로 가는 경우도 많다. 외국기업의 진출, 국제교류의 증가에 따라 외국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교육수준이 후에 경제적 지위와도 연관되기 때문에 교육이 더 중요시 되고 있다.

4) 대학

브리야트 공화국에는 브리야트 주립 대학(BSU, Buryat State University), 동시베리아주립기술대학(ESSTU, East Siberian State Technological University), 브리야트 농업 아카데미 등 농과대학, 사범대학, 기술대학, 문화대학이 있다.

인문사회계열에서는 브리야트주립대학이 공화국 내 가장 영향력 있는 대학이다. 1932년에 컬리지로 설립되었으며 95년에 종합대학으로 인정되었다. 현재 12,000여명의 학생이 재적하고 있다. 이 대학은 브리야트 종족의 언어, 문학, 예술 연구에서 독보적이다. 자연과학계열에서는 동시베리아주립기술 대학이 가장 크다. 동시베리아주립기술 대학의 경우 러시아학생과 브리야트 학생의 비율은 각각 50%정도로 비슷하다.

5) 요약

교육열이 상당히 높은 편이며, 대부분의 학생이 고등교육을 이수하고 작은 마을의 경우에도 교육을 위해서 도시로 오는 경우가 많다. 생활이 안정되어 갈수록 교육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교육을 통해 복음의 접촉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영어나 한국어 등 외국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7. 종교분야

1) 개요

브리야트 종족은 전통적으로 바이칼 호수를 거점으로 샤머니즘이 강하게 나타났다. 시베리아 원주민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꿈을 숭상하는 토데미즘이나, 만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는 애니미즘 등도 접목해서 나타난다. 알혼(Olkhon) 섬은 세계 샤머니즘의 성지로 알려진 곳으로, 매년 세계 각지의 무당들이 모여 제사를 드린다. 한편 17-18세기경 몽골과 티벳으로부터 동부 브리야트 지역에 라마불교가 전파되었다. 초창기 불교와 샤머니즘은 경쟁하며 대립하였지만, 현재는 공존하며 혼합된 경우가 많다. 1681년 러시아 정교에 의해 최초로 다우르스카야 선교센터를 설립하고 적극적인 포교 정책을 실시하였다. 러시아가 지배자적 위치에서 포교활동을 실시하면서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샤머니즘과 라마불교가 전통종교로서 각인되었다.

2) 종교현황

바이칼을 기준으로 이르쿠츠크를 포함한 서부 브리야트 종족들은 샤머니즘을, 울란우데 및 아가 자치구를 중심으로 하는 동부 브리야트 종족들은 라마불교를 제 1 종교로 삼고 있다. 샤머니즘은 공산주의 시절을 거치면서 약화되었다가 1990년 이후 동부 및 서부에서 예전과는 다른 양식으로 부흥하고 있는데 이를 네오샤머니즘(Neo-Shamanism)이라고 일컫는다. 학술적인 샤먼, 혹은 공연을 위한 직업 샤먼의 등장이 네오 샤머니즘의 특징 중 하나이다. 현대적인 샤먼센터가 지어지고 샤먼 세미나가 개최되기도 한다. 특기할만한 것은 동부 브리야트 지역에서 나타나는 샤머니즘의 부흥이다. 울란우데에는 3개의 샤먼센터가 있고, 사람들은 아프거나 고민이 있을 때 이 곳에 찾아와서 진단과 치료를 받는다.

불교의 경우 다찬(Datsan)이라고 불리는 사원이 있다. 공산주의 시절 샤머니즘 이상으로 탄압을 받은 불교는 30년대 거의 모든 사원이 폐쇄될 정도였으나, 최근 10여 년간 빠르게 부활하고 있으며, 철학적인 측면이 강해지고 있다. 1992년부터 러시아 정부는 민족 건축 기술상 유적이 되는 사찰들을 복고 재건하는데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이에 브리야트 공화국의 모든 브리야트 종족 거주구역에서는 새 사찰이 건설되었거나 건설되고 있다.²⁵

²⁵ 안동일, 월간불광, (1997)

특히 울란우데의 아볼긴스키 사원은 러시아 라마불교의 총본산이라고 불리며 14대 달라이 라마가 1992년 이래 여러 번 방문하기도 하였다. 브리야트 종족뿐만 아니라 동양적인 분위기와 철학에 관심을 가진 러시아인과 관광객들이 오기도 한다. 샤머니스트와 불교도들은 비교적 평화롭게 어울려 살고 있으며, 서로의 제사 도구를 차용하는 등 혼합주의적인 성격이 나타난다.

한편 다수의 러시아인들은 러시아정교를 자신의 종교로 믿고 있다. 울란우데 시내 중심가에 3개의 정교회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신실한 크리스천이라기보다 명목상의 크리스천들이 많다. 러시아정교는 샤머니즘, 불교와 충돌을 피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서쪽의 브리야트 종족은 샤머니즘과 러시아정교를 혼합하여 믿고 있기도 한다. 라마불교신자가 많은 동부 브리야트의 경우 샤머니즘보다 종교적 정체성이 더 강해서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이 더 크다.

3) 종교특징

(1) 샤머니즘

샤머니즘은 바이칼 호수 근처의 브리야트 종족의 전통종교이다. 나무를 신성시하기도 한다. 바이칼의 자작나무는 우주목이라고 여겨진다. 신성한 나무를 보면 파란색 천이나 담배를 꽂아 존경을 표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서낭당과 같이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나뭇가지 등을 꽂는 아버 신앙도 있다. 구원, 죄 구속의 개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았으나, 대개 샤먼을 찾는 이들은 내세보다는 질병이나 중대사의 결정 등 현실적인 문제로 찾아온다. 긴 여행을 떠나기 전에 가야 할 길을 샤먼에게 묻기도 하고 새집을 장만하였을 때 무사안전을 기원하면서 간단한 제사의례를 행하기도 한다.

(2) 라마불교²⁶

불교는 공덕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이생에서 쌓은 공덕 혹은 업보에 따라 다음 생애의 삶이 결정되는 윤회설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기도와 수행, 선행 등을 중요시하며 살생을 큰 죄로 여긴다. 때문에 피 흘림의 제사와 대속 같은 개념은 불교도에게 큰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다. 이는 성경에 있어서 핵심적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들의 문화적 관습을 고려해 구약의 제사에 관한 부분은 다른 성경적인 이해를 쌓은 이후에 이야기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염불원통²⁷을 돌리면 염불을 외우는 것과 같다고 간주되며 이러한 종교적 예식을 통해서 공덕을 쌓을 수 있다. ‘옴 마니 반메 흠’ 같은 진언 역시 말할 때뿐만 아니

²⁶ 마르꾸 쩌링. 『티벳불교권 선교』 (도서출판NCD, 2003)

²⁷ 염불원통(prayer wheel)은 불경이 들어 있는 조그만 원통에 손잡이가 달려 있어 빙빙 돌리는 기구이다.

라 보는 것으로도 공덕을 쌓을 수 있다고 여겨, 마을의 입구에 이런 진언을 쓰기도 한다. 승려들과 사찰에 봉사하는 것, 신성한 장소로 멀리 순례여행을 가는 것 등은 공덕을 많이 쌓을 수 있는 방법이다.

라마불교는 이국적인 매력, 철학적인 측면을 더해 러시아인 및 서구 권의 사람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무폭력, 공사상, 초연함 등에 대한 이상을 가지고 있다. 불교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사상은 실재하는 오감각의 세계에 대한 부정이다. 공(空)이 우주의 근본이기에 이 세상은 단지 환상이라는 것이다. 어떤 불교도들은 기독교나 불교나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고 그렇기에 결국 같은 것이라고 말한다. 산으로 오르는 여러 갈래의 길 중 하나라는 것이다. 궁극적 진리는 교리상의 모순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동등하게 유효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라마나 불교철학에 관심이 있는 지식인층과는 달리 민중들의 신앙은 현실적이며 샤머니즘과 접목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 특히 영적인 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신비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민중들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4) 종교지도자

(1) 샤먼의 선출방법 및 지도자 양성

샤먼은 다양한 방법으로 선출된다. 흔히 ‘샤먼병’을 앓고 영적인 능력이 생겨 샤먼이 되거나, 가족대대로 샤먼인 경우(세습무)가 전형적이다. 브리야트의 경우 샤먼의 능력에 따라 9단계로 나뉘지며, 샤먼센터에서 샤먼인증서를 발급해주기도 한다. 샤먼이 직접 후계자를 지명하여 양성하는 경우도 있다.

샤먼은 본업을 따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늘로부터 주어진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다른 사람을 위해 이 능력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직업적으로 보다는 일종의 소명의 개념으로 청탁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물론 직업으로서 샤먼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2) 라마의 선출방법 및 지도자 양성

러시아 라마불교의 수장은 함부라마이다. 티벳불교 전체의 정신적 지주인 14대 달라이 라마 텐진 가초는 현재 인도에서 망명생활을 하며 티벳 독립 운동에 힘쓰고 있다.²⁸ 달라이 라마와 러시아 라마불교와는 정확히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는 조사하지 못했으나, 달라이 라마가 시베리아 지역에서도 티벳불교의 수장으로서 존경을 받

²⁸ 달라이라마에서 '달라이'는 몽골어로 '큰 바다'라는 뜻이고, '라마'는 티베트어로 '영적 스승'이라는 의미로 달라이라마는 '넓은 바다와 같이 넓고 큰 덕을 소유한 스승'이란 뜻이다. 라마교에서 라마는 주술을 부릴 수 있는 영능력을 갖춘 자를 말한다. (출처: 국제지역연구소, 『선교지역연구보고서』)

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90년대 두 차례에 걸쳐서 브리야트 지역을 방문했으며 브리야트 종족은 이 일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달라이 라마의 경우 전 라마가 죽은 시점에 태어난 아이 중에 후보를 간택하고 여러 단계의 신비로운 의식을 통과하면 달라이라마로 인정된다. 이러한 지도자 선출과정은 윤회설을 믿는 불교도의 신앙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지도자를 선출하는 방식은 특수한 것이고 보통 승려는 사원이나 불교 신학교에서 양성된다. 이불긴스키 사원에는 정부에서 인가를 받은 불교 신학교가 있다. 이곳에서 라마들은 경전을 배우고 관리하며 기도하고 수행하는 일 등을 한다. 이곳 외에도 상뜨페쩨르부르크 등에 불교대학이 있으며 이곳은 젊은 러시아 층에 불교화 산에도 기여했다.

5) 요약

브리야트는 전통적으로 바이칼을 중심으로 하는 샤머니즘이 강력하지만 17세기 동부 브리야트 지역에 라마불교가 전파된 이래로 라마불교가 동부 브리야트 종족의 전통 종교로 자리잡았다. 샤머니즘과 라마불교는 과거에 상호 적대적이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서로의 제사의식 도구를 차용하는 등 혼합적인 성향을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샤머니스트와 불교신자는 구분되며, 울란우데와 키진가 비롯한 동부 브리야트에서 주류는 라마불교이다. 라마불교는 샤머니즘보다 종교적 정체성이 더 강하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더 배타적이다. 때로는 ‘모든 종교는 진리를 향해 가는 다른 길’이라며 기독교도 불교도 결국은 같다는 논리를 펴는 사람도 만날 수 있다.

8. 기독교 상황

1) 기독교 개요²⁹

샤머니즘과 불교, 러시아정교의 영향으로 브리야트 지역에서의 기독교 복음전파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꾸준히 시베리아의 관문종족으로서, 그리고 몽골-알타이어계의 주요 종족으로서 세계 선교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다양한 국가에서 선교사가 파송되었다. 브리야트 종족 선교에 대한 국제적인 컨퍼런스가 헬싱키에서 열리기도 했다. 현재 브리야트 종족 60여 만 명 중 복음주의적 기독교인은 100명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²⁹ 이 항목에서 기독교는 개신교, 복음주의적 기독교를 지칭한다.

2) 기독교 현황

러시아 브리야트 공화국, 중국, 몽골에 있는 브리야트 종족 60여 만 명 중에서 복음주의적 기독교인의 수는 100여명 정도 된다.³⁰

수도인 울란우데에는 20여 개 이상의 교회가 있으며, 브리야트 공화국 내 20개 라이온마다 1~2개의 교회가 있다. 교회 수는 적지 않은 편이지만 교회 신도들 대부분이 러시아인인 경우가 많다.

종족언어 성경은 19세기 초반 영국에서 파견된 선교사가 32년에 걸쳐 작업에 착수 하였으나 상용화되지는 못하고, 다시 1990년대 초부터 신, 구약 번역작업이 시작되었다. 현재 신약성경 번역작업이 마무리 중에 있다.

3) 기독교 인식

역사적으로 브리야트 종족에게 기독교는 러시아제국의 침략과 함께 전파되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다. 러시아 정교는 1861년 다우르스카야 선교센터를 세우고 적극적인 포교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뺑 조각 때문에 십자가를 목에 건다’라는 속담처럼 기독교로의 개종은 곧 민족을 배신하는 것으로 여겨졌고 포교정책은 오히려 샤머니즘을 자신들 집단의 전통종교로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구 소련 붕괴 이후 서구 권과 한국 등지에서 복음주의 계열에서 여러 선교사가 파송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서구 권의 선교사들은 전통문화를 파괴하는 자들로 여겨진다. 특히 러시아정교보다 개신교에 대한 거부감이 더 강하다. 이는 개신교가 혼합주의에 대해 더 경계하며 샤머니즘 등을 우상숭배로 단호하게 부정하는 데에 연유한다.

그러나 개신교 자체가 소수이기 때문에 대부분 러시아에서 기독교라고 하면 대체로 러시아정교를 떠올린다. 또한 러시아정교 역시 슬라브 민족주의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러시아인의 종교라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4) 요약

민족성과 종교가 뿌리깊게 연결된 러시아의 종교적 특성으로 인해 기독교의 전파가 쉽지 않다. 과거에 정복적인 포교정책으로 인한 부정적인 인식에 여전히 기독교는 러시아인의, 혹은 서구인의 종교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기독교의 전파는 곧 전통문화를

³⁰ 복음화율 100/600,000명, 기독교인 12%, 복음주의적 기독교인 0.5% (출처: 여호수아 프로젝트 www.joshuaproject.com)

파괴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브리야트 종족은 불교, 러시아인은 기독교와 같은 이분법적 인식을 극복하고 브리야트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섬기는 사역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브리야트 종족에 의한, 브리야트 종족을 위한 현지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다.

V. 브리야트 종족의 선교전략

1. 기존 선교 현황

1) 선교의 역사

러시아의 시베리아 정복 이후 러시아정교가 1681년 최초로 다우르스카야 선교센터를 설립하였다. 개종 시 세금을 낮추거나 신분상승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포교 정책을 실시하였으나 이는 오히려 샤머니즘과 라마불교를 자신들의 전통종교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침략자의 입장에서 포교하고 개종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브리야트 종족들은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

한편 19세기 초, 영국 회중파(영국 청교도의 한 분파) 선교사 5명이 선교를 위해 이르쿠츠크에 도착했다. 그들은 18개월 동안 브리야트어를 배우고 브리야트 공화국의 셀렝긴스크에 스테파니 선교원을 세웠다. 오랜 세월을 걸쳐 성경 번역을 하며 사역하였으나 여전히 기독교는 백인들의 종교라는 생각이 뿌리깊었다. 당시 제정러시아의 황제였던 알렉산드르 1세는 러시아정교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영국인들의 선교를 제한하였다. 대부분의 영국인 선교사들과 그 가족은 고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이 와중에 시베리아의 혹독한 추위로 인해 순교한 가정도 있었다.

1990년 소련붕괴 이후 미국,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러시아로 선교사를 파송하였다. 브리야트 지역에 파송된 첫 한국인은 L, K 선교사였으며, 1994년 즈음에 파송되어 10년간 사역하였다. 살롬교회라 불리는 여러 자매교회를 세웠고 본 조사 팀이 방문한 키진가 교회도 이들이 세운 교회이다. 현재는 현지인 사역자에게 목회를 이양하였다.

현재까지 총 4~6명 정도의 한국 선교사가 브리야트 땅에서 1년 이상 사역을 하셨으나 비자 문제 등으로 추방당하였다. 현재는 J선교사 한 명뿐이다. 울란우데에는 한국인 선교사 이외에도 미국, 독일,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지에서 파송된 선교사 가정이었다.

2) 국제 및 한국 사역단체(NGO 포함)의 활동현황

현지에서 어떤 사역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지는 파악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미 세계 각국에서 중보기도 모임이나 브리야트 종족 선교를 위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

음을 온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2009년 여름, 서울에서 제1회 몽골-시베리아 창 선교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바이칼 포럼’이라는 곳에서 브리야트 종족에 관심을 가지고 학술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 북방 바이칼에 한민족의 시원이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사학자, 생물학자, 고고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회이다. 기독교적인 시각은 아니지만 바이칼 지역과 브리야트 종족에 대한 학술적 연구 및 책 출간을 한다.

3) 영적 상황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정교 이외의 다른 기독교분파를 이단시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전반적으로 선교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다. 러시아 정교의 직간접적인 방해가 있으며, 비자문제 등 실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선교에 많은 제약이 있다.

브리야트 공화국 정부는 이런 러시아의 상황과 더불어 의회에 진출한 많은 이들이 불교신자이기 때문에 개신교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강한 편이다.

러시아 불교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이불긴스키 다찬 사원에서는 200명의 라마가 24시간 동안 기도를 드리고 있다. 또한 2007년에 사망한 12대 함보 라마 도초 이티 길로프의 시신이 썩지 않은 채로 공개된 이후, 많은 이들이 그를 보고 기도하기 위해 사원에 온다. 일년에 한번 시신을 공개하는 날에는 각지에서 수많은 이들이 모인다. 라마 불교로 인한 견고한 진이 브리야트 전체에 퍼져 있다. 도시와 마을의 입구 혹은 중심지에는 불상과 수보르간 등 우상들이 세워져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기독교에 대한 상처와 오해, 우상숭배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 장님의 상태라는 것이 현지 사역자들의 공통된 고백이다. 많은 기적들을 보아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설령 믿음이 생겨도 주변 가족과 지인들의 시선 때문에 교회에 꾸준히 나오는 성도들이 많지 않다. 그러나 브리야트 종족을 향한 많은 기도가 쌓여있는 만큼 상황이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단번의 변화를 기대하기보다 시간을 가지고 이들을 변화시키실 때를 기다리며 중보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브리야트 종족 선교의 방해요소

1) 종족 외부적 방해요인

브리야트 종족에게 접근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러시아 연방정부의 종교법

이며 그 중 가장 큰 선교의 방해요인은 비자문제이다. 1997년 개정된 종교법에 의해 공공장소에서 종교행위 금지, 노방전도 금지, 어린이 전도 금지(어린이가 교회에 다닐 경우 부모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등의 조항이 생겼다. 이는 개신교만 겨냥한 것은 아니고 개방 이후 몰려오는 신흥종교 및 이단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복음화를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종교비자가 3개월 이상 연속체류가 불가능하게 되면서 영주권을 받지 못한 선교사들의 사역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실상 종교에 관련한 정부의 법 제정 및 시행에는 러시아정교가 많은 영향을 끼친다. 러시아정교는 개신교를 위협적 혹은 경쟁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등과 함께 이단으로 분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본주의로 인한 세속화도 문제이다. 현재는 불교신자이든 러시아정교 신자이든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제1의 관심이 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영적인 세계보다 현재의 부와 안락함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신실한 신자도, 헌신적인 사역자도 찾기 어려운 형편이다.

2) 종족 내부적 방해요인

단연 샤머니즘과 라마불교이다. 특히 동부 브리야트의 경우 라마불교를 자신의 민족정체성과 연관되어있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배타적인 감정이 더 강하다. 주변 지인들의 시선도 큰 어려움이다. 기독교로 개종했을 경우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민족의 배신자’라는 말까지 들을 수 있다. 규모가 작은 마을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강하다. 침략과 함께 전파된 것이 기독교라는 역사적인 사실도 전도에 어려움이 되고 있다.

3) 기존선교활동의 한계

브리야트 종족 선교의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바로 사역자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브리야트 현지인 사역자가 필요하다. 민족차별 없이 러시아인과 브리야트 종족이 잘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보통이지만, 아무래도 민족감정이나 같은 민족끼리 통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역자가 브리야트 종족인 것이 중요하다. 종족 개념을 가지고 브리야트 종족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가 없다는 것도 문제이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러시아인이 다수인 상황에서 브리야트 종족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는 있지만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

러시아 현지 교회 내에서도 브리야트 종족은 소수인 경우가 많다. 교회 내 브리야트 종족이 소수일 경우에도 그들이 소외감이나 어색함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는 자세

가 필요하다. 교회의 초기 민족구성도 중요한 여건이다. 초기 민족구성에 따라 향후의 민족구성도 어느 정도 결정지어진다. 또한 종교법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부분들도 많다. 교회개척을 하여도 전도나 사역에 있어서 제한이 많다.

3. 브리야트 종족 선교의 가능성과 성공사례

1) 기존 방해요소들의 변화

라마불교 사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종교적인 헌신이 약한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민족 정체성의 지표로 당연히 불교도여야 한다는 의식이 있다. 특히 전통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엘리트층에서는 더욱 불교가 중요하게 여겨진다.

소련 붕괴 이후 변화된 체제에 따라 경제적 여건이 매우 중요해졌고,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의 관심이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누리는 것에 집중되고 있다. 때문에 불교신자인 경우에도 기복적인 경우가 많다. 신실한 불교신자들도 있지만 많은 이들은 기복적, 혹은 문화적으로 1~2달에 한번 정도 불교사원에 가는 경우가 많다. 러시아인이면 러시아정교 신자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다.

개신교에 대한 오해와 루머들도 교회와 신자들이 맺는 열매를 보고 사라지기도 한다. 본 조사 팀의 현지 인터뷰에 의하면 대부분의 현지 목회자들이 사역 첫 5~6년에 가장 오해도 많고 직간접적인 박해도 많았다고 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그런 오해들이 많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2) 세계 및 한국 선교상황의 변화

한국 내에서 러시아 선교와 시베리아 선교는 중국, 중동, 동남아 등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지역이다. 주도적인 세계선교 흐름인 백 투 예루살렘(Back To Jerusalem, 이하 BTJ)을 이뤄나가는데 있어 유라시아 대륙의 중요성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시베리아의 민족들은 BTJ 과업을 이루어나가는데 있어서도 ‘북방민족’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시베리아 민족의 삶의 터전인 유라시아는 광대한 면적과 더불어 수많은 인접국이 있다. 유라시아는 중앙아시아, 아제르바이잔, 이란, 터키 등으로 이어지는 견고한 무슬림 국가의 복음전파에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브리야트 및 몽골인의 디아스포라 수가 상당하다는 것에서 그 가능성을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시베리아 복음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는 몽골이다. 몽골은 이미 많은 선교사

들이 파송되어 있고 현지교회도 자체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다. 브리야트, 투바, 칼믹 등 티벳불교권 미전도 종족은 몽골과 문화적, 종교적 유사성을 공유하고 있다. 때문에 몽골에 파송된 선교사 중 넓은 차원에서 시베리아 지역의 복음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있다. 몽골, 시베리아, 중앙아시아 등지로 연결되는 알타이 문화권에 대해서도 선교적으로 접근해볼 수 있다. 이러한 문화 권역별 선교에 대한 관심은 아직 소수지만 현지선교사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차후 이에 대한 선교리서치를 병행해 보다 구체적으로 종족 선교에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에서 3개국에 분포하며 몽골로이드(Mongoloid) 계통인 브리야트 종족은 핵심적인 민족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효과적인 복음의 접촉점

우선 한국에 대한 관심과 호감이다. 러시아에서 한류를 찾아보기는 어렵지만 브리야트 공화국에는 한국의 일자리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한국에서 1-2년 정도 일했던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 볼 수 있었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아이들도 많았다. 태권도의 인기도 상당했다. 한국어, 한국문화 등을 선교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선교지 뿐만 아니라 한국 내 이주노동자인 브리야트 종족을 위한 사역도 가능하다.

일자리 부족이 현실적으로 큰 문제인데 이를 통한 복음의 접촉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들의 알코올 중독, 현실 비판, 자살, 가정파괴 등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특히 작은 마을의 경우 개방 이후 일자리 부족이 극심한데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선교는 다양한 방면에서 지역과 민족의 필요를 채워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을 통한 선교도 가능하다. 경제적인 형편이 점차 나아짐에 따라 아이들 교육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몽골국제대학(MIU)의 소수민족 학생 양성 등을 좋은 사례로 볼 수 있다.

대도시와 떨어져 있는 경우 문화시설이 거의 없다. 이들에게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여가환경을 마련해주는 것도 좋은 복음의 접촉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성공사례

(1) 몽골국제대학교 (Mongolian International University)

몽골국제대학교(이하 MIU)는 2002년 세워진 대학이다. 몽골인 뿐만 아니라 몽골, 러시아, 중앙아시아의 소수민족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다. 기독교적 세계

관과 실력을 갖춘 민족 지도자를 양성하자는 교육 목표를 지닌 몽골국제대학은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고 있으며 몽골 내에서도 실력 있는 사립대학으로 꼽힌다.

본 조사팀과 동행한 MIU팀 학생들을 통해서도 선교비전을 볼 수 있었다. 3명의 브리야트 종족, 사하족, 투바족 등의 시베리아 소수민족이 있었는데 특히 브리야트 학생들은 키진가에서의 미션트립을 통해 장기사역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되었다. 소수민족 지역에 있을 때는 복음을 접할 기회도 흔치 않고 믿는다 하더라도 주변의 거센 반대와 눈초리로 신앙을 유지하고 체계적인 신앙교육을 받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MIU에서는 신앙훈련과 전공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다. 4년간 신앙과 실력을 갖춘 학생이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사역을 한다면 귀중한 사역자가 될 것이다.

(2) 치타 구원교회(Chita Salvation Church)

시베리아 전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교회인 치타의 구원교회(Salvation Church)는 다양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50여 개의 지방교회(daughter church)를 개척하였으며 고아원, 알코올 마약 중독 재활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G12 방식의 소그룹 모임이 활발하며 매 방학마다 청소년들을 위한 유스캠프(Youth Camp)를 연다.

재활센터에서는 약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말씀과 소일거리 등의 재활훈련 등을 통해서 치료한다. 본 조사 팀이 방문한 센터에는 15여 명의 회원들이 있었는데 자의로, 혹은 가족의 권유로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들의 간증을 통해서 알코올 중독이 얼마나 큰 피해를 주었는지, 또한 치료 이후 삶의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는지 알 수 있었다. 브리야트 공화국은 러시아 전역에서 알코올 중독자 수가 가장 많다. 때문에 이런 알코올 재활치료 센터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지역에 적합한 센터를 설립한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 구원교회에서 브리야트 종족을 대상으로 특별한 프로그램은 없다. 전체 1,000여명의 교인 중에서 브리야트 종족은 5명 내외이다. 전반적으로 미전도 종족 선교에 대한 개념이 러시아 현지교회에서는 희박하다. 바로 주변에 사는 이웃이기 때문에 종족선교라는 개념이 형성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구원교회와 같이 기반이 잡힌 러시아 현지교회들이 주변의 종족선교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배려한다면 좋은 변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4. 브리야트 종족의 선교전략 제언

1) 선교전략 기본방향 제시

시베리아의 관문종족으로서 브리야트 종족의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몽골 및 시베리아 선교계에서 브리야트는 널리 알려진 편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역자가 부족하며 자립한 현지 교회도 경제적, 영적인 어려움이 많다. 라이온마다 교회는 하나 이상 있기 때문에 교회 개척에 힘을 쏟기 보다는 현재 있는 현지교회에 힘을 실어주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

과거만큼 심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브리야트 종족이 기독교로 개종한다면 전통적인 주변 사회로부터 배척 받는 경우가 많다. 직접적인 복음전파에 대한 거부감도 많다. 러시아 종교법 상으로 공공장소에서 전도, 선교 등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선교전략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지혜가 필요하다.

이러한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브리야트를 향한 오랜 중보기도와 선교계의 관심이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열정적으로 사역하는 현지 사역자도 브리야트 종족의 희망이다. 앞으로 제시될 선교전략은 현지교회와 연계하여 장/단기 사역을 유기적,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러시아라는 국가의 특성상 행정적 처리가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점을 유념하고 종교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사역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사역방안이 필요하다.

2) 대상별 전략 제언

(1) 청소년 (어린이/청년층 포함)

방학 동안의 언어, 과학캠프 등을 진행할 수 있다. 학교의 허가를 받는다면 학교내의 사역도 가능할 것이다. 물론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허락을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고 도시의 경우 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교육재원이 부족하면서 교육열이 높은 키진가와 같은 마을에서 그들이 원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줄 경우 시도해볼 수 있다. 실제로 본 조사 팀은 키진가 공립학교에서 3일간 한국어 및 태권도 캠프를 진행했다. 직접적인 전도는 불가능하지만 이런 캠프를 통해 친분을 쌓은 후에 교회로 아이들을 초대하고 선생님과 학부모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단기선교와 장기 선교의 유기적인 연합이 필요하다. 단기로 끝나는 캠프는 별다른 효력이 없다. 키진가 마을에도 미국, 유럽, 한국 등지에서 여러 선교 팀이 와서 영어캠프, 문화공연 등 단기적인 캠프와 이벤트를 진행하였고 상당한 수의 주민들이 참석하기도 했지만 이를 통해서 신도가 된 사람은 거의 없다. 여러 명으로 구성된 단기 팀이 방학 때 와서 큰 캠프를 열고, 한 두 명 정도 단기선교사로 남아 지속적으로 한국어, 영어 교육 등을 양육과 병행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지역 내의 1~2명의 아이들이 MIU 등으로 진학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한 마을의 한 명 정도 장학생 형식으로 MIU로 유학을 가서 복음을 접하고 마을로

돌아와서 사역한다면 귀한 복음의 씨앗이 될 것이다. 그 밖에 스포츠 등을 통해 우정을 쌓고 개인적으로 전도할 수도 있다.

러시아의 경우 어린이는 부모님의 허락이 있어야 교회 출석이 가능하다. 아이들의 경우 어른보다 쉽게 마음의 문을 열고 종종 교회에 오는 경우가 있으나 부모님의 반대로 곧 발길을 끊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부모님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의 유용성을 홍보하고 교제하여 동의를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전도를 할 수 있다면 더욱 좋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에도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상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2) 싱글맘(Single mom)

러시아에는 양육과 직장 모두를 신경 써야 하는 싱글맘이 많다. 특히 남편의 알코올중독, 외도 등으로 이혼한 가정의 많은데 이 경우 대부분 여성이 양육을 책임진다. 전 남성의 양육비 부담 의무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여성이 양육과 직장을 병행하는 데에는 애로사항이 많다. 또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여성이 많은 만큼 그들을 위한 쉼터 및 모임을 조직하거나 아이들을 보살피 줄 수 있는 놀이방 등이 있다면 좋은 모임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모임 중에 성경적 가정상담, 성경적 양육 등을 이야기하며 자연스럽게 복음 전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3) 분야별 전략 제언

(1) 문화사역

브리야트 종족은 춤과 노래를 즐긴다.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고, 울란우데와 같은 대도시에는 문화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수도와 떨어진 키진가와 같은 마을에는 문화시설이 거의 없다. 여가시간을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나 놀이가 없어 대부분의 시간을 술을 마시거나 디스코텍에서 보내기도 한다. 교회 내에서 영화 상영, 영화 설교 등이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다. ‘이집트의 왕자’같이 기독교적 세계관이 담긴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를 상영하고 그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있다. 단기 선교팀의 문화공연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 이것이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도록 장기적으로 접목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 농업전문인사역

농업기술개발 등은 감자 등을 주요작물로 키우고 있는 시골 마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현재 브리야트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옥수수과 같은 작물개발도 어렵게 끼니를 자급자족하고 있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한편 일자리창출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기술개발로 특화된 상품은 지역 특산물로 생산하여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3) 한국 일자리 소개센터

상당수의 브리야트 종족이 한국에서 일해본 적이 있거나 일하기를 원한다. 키진가 마을에서는 지인 중 한 두 사람 정도는 한국에 가 본적이 있을 정도였다.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이들도 있었으나 좋지 못한 사업가를 만나 한국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일자리가 부족하고 한국에서는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이야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이들이 많다. 한국에 믿을만한 일자리와 교회를 연결시켜주는 센터, 혹은 에이전트가 있다면 좋을 것이다. 이미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브리야트 종족 외국인노동자 사역도 중요하다. 사랑으로 섬기고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양육할 때, 그들이 고향에서 좋은 평신도 사역자 모델이 될 수 있다.

4) 현지교회 개척 전략

(1) 가족전도

브리야트 종족의 경우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드렸어도 주변 사람의 비난이나 압력이 너무 커서 도중에 신앙생활을 포기하기도 한다. 가족은 전통적인 사회에서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가장 중요한 사회생활의 기본단위이고 특히 가족 중심으로 모임과 교류가 많은 브리야트 종족에게 가족들의 극심한 반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다. 때문에 처음부터 복음을 전할 때에 가족단위로 전하는 것을 시도해 보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2) 제자양육

‘브리야트 족에게는 신도가 아닌 제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현지 선교사님의 말씀이다. 일대일 제자양육 혹은 다섯 명 내외의 제자훈련 등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기독교인으로 개종했을 때의 주위의 압력과 소외로부터 잘 견뎌 낼 수 있도록 교회 내의 끈끈한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3) 브리야트 종족 교회

브리야트 사역자가 브리야트 종족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필요하다. 민족으로 구분 짓는 것이 다민족사회인 러시아에 다소 알맞지 않을 수 있지만 종교에 있어서는 역사적, 문화적 이질적인 감정이 큰 편이므로 브리야트 종족을 위주로 하는 교

회가 세워지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특히 브리야트 종족이 목회자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들에 지속적인 재정후원과 중보기도 모임으로 후방사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V. 나가는 말

브리야트 종족이 가지고 있는 선교적 중요성은 여러 가지 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지리적, 인종적, 문화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샤머니즘과 라마불교로 대표되는 시베리아 영성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종족이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는 개관적인 조사에 그쳤지만 차후에 좀더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

보다 더 많은 현지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보다 적실성 있는 선교전략을 도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최근의 통계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 확보 여부도 중요하다. 특히 시베리아 지역의 최근의 영적 상황의 변화를 살피고, 소수민족으로서의 입지와 상황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브리야트 종족 연구에서 자연스럽게 시베리아 다른 민족과 연계해 후속 연구 계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브리야트 내 후속 연구로 여러 지역과 방언에 따른 개별조사나 주제조사를 시도해 볼 수 있다. 도시로 이주하는 브리야트 종족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도시와 농촌의 사는 브리야트 종족의 종교적 감수성이 얼마나 다른지, 도시와 농촌에서 각각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조사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헌신하는 사역자가 필요하다. 위와 같은 조사도 효과적인 선교에 있어 도움을 줄 수는 있겠으나 현장에서 일을 할 일꾼들이 부족하다면 탁상공론에 지날 뿐일 것이다. 현재 한국인 선교사는 1명 뿐이다. 현지 교회에서도 목사님 이외에 교회를 섬기고 이어갈 수 있는 헌신된 제자가 필요하다.

각 라이온마다 있는 지역교회는 실상 어려움이 많다. 재정적인 어려움과 영적 전쟁이 치열한 곳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중보기도가 필요하다. 신자 수도 5명 이내로 정체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신자 수로 급급하게 교회의 성패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을 향한 오랜 기도가 쌓여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만큼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영적, 물질적, 인적으로 꾸준히 중보해야 한다.

〈참고문헌〉

- 국립민속박물관, 국제샤머니즘 학술세미나 발표집, (2007)
- 김종록, 『바이칼(소설가 김종록의 북방탐험기)』 (문학동네, 2002)
- 마르꾸 제링, 『티벳불교권 선교』 (도서출판NCD, 2003)
- 마르꾸 제링, 티벳불교권 선교
- 부리야트의 고향, 바이칼 (KBS 걸어서 세계 속으로, 2008년 10월 25일)
- 안나 레이드, 『샤먼의 코트』 (미닷스북스, 2003)
- 안동일, 『월간불광 코트』, (1997)
- 연합뉴스, (2005년 8월 14일)
- 전봉수, 부랴트인 민족정체성에 관한 연구, (2008)
- 전봉수, 다언어사회에서 소수민족 언어의 소멸원인
- 제임스 포사이스, 『시베리아 원주민의 역사』 (술, 2009)
- 하현준, 『철길따라 대륙을 누빈다』 (삼우빈, 2005)
- 9,288km시베리아횡단열차 2부. 샤먼의 바다, 바이칼 (EBS 세계테마기행, 2008년 4월 8일)
- 네이버 블로그, www.naver.com
- 두산백과사전, www.encyber.com
- 브리야트 공식 영문 홈페이지, www.egov-buryatia.ru/eng
- 브리야트선교연합, BUM, www.buryatunion.com
- 여호수아 프로젝트 www.joshuaproject.com